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독립운동입니다.



흥사단

홍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소개

1 홍사단

- 홍사단은 1913년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민족운동단체입니다. 홍사단에 소속되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활동한 단우 중에서 180여 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습니다.
- 우리 단의 목적은 무실역행(務實力行)으로 생명을 삼는 충의남녀(忠義男女)를 단합하여 정의(情誼)를 돈수(敦修)하며 덕(德)·체(體)·지(智) 삼육을 동맹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 전도번영(前途繁榮)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다.
 - 홍사단 약법 제2조 (목적) -
- 창립 당시 홍사단은 독립운동에 헌신할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고, 부강한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힘과 실력 배양을 토대로 한 자주독립운동을 전개하여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고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참된 민주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홍사단은 180여 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하였습니다.
- 해방 후 홍사단은 나라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할 인물양성에 매진하는 한편 고등학교·대학교·청년 아카데미를 조직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현재 홍사단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돕기, 민족통일운동, 투명사회운동, 교육운동 등 시민운동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풀뿌리 시민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 홍사단은 전국의 24개 지부와 미국과 캐나다에 12개 지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회관, 수련관 등 28개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4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력적지위 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내 직업은 독립운동가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도산 안창호



2 홍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 임원진

- 상임대표 : 이춘재
- 공동대표 : 신동선, 나종목, 김전승, 이송, 지정호

□ 홍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활동 경과

가. 2005년 홍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운동 선포(발족)

나. 장학금 지원사업

- 홍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770여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총 34회, 6억8,85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우선 선발하여 지원

다. 독립유공자 리더십 함양 사업

- 2008년 독립유공자후손 가족 문화행사
- 2009년 춘천 의병마을 역사문화탐방
- 2010년 중국 동북3성 역사탐방
- 2010년 행복한 꿈 리더십 여름캠프
- 2011년 안동 독립운동유적지 답사
- 2012년 순천-여수 독립운동유적지 답사
- 2013년 광복절 기념 독도방문 여름캠프
- 2014년 독립운동을 찾아서 북·중·러 역사탐방
- 2013년 독도방문 여름캠프

- 2014년 북·중·러 역사탐방 여름캠프
- 2015년 중국 동북3성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 2016년 임시정부 탐방(상해·항주 등)
- 2017년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관람
- 2018년 제주 리더십 캠프(독립유적지, 일제 군사시설 탐방)
- 2018년 울릉도와 독도탐방(독도수호국제연대의 독도탐방 교육훈련)
- 2018년 군함타고 동해 해상순례(바다를 품고 세계로, 희망을 품고 미래로)
-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탐방(충청, 난징, 전장, 상하이 등)

라. 독립유공자후손돕기 캠페인

- 2015년 DAUM 희망해 후원금모금 캠페인
- 2016년 같이가치 with kakao 후원금모금 캠페인, 언론특집기사, 가두 캠페인 등
- 2017년 독립유공자 실태 파악 정보공개청구 및 분석자료 발표
- 2017년 청년스타트업 기업 ZAMU와 크라우드펀딩
- 2018년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 정보공개 청구 및 개선 요구(언론보도)
- 2005년~현재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 진행
- 일반 시민, 기업후원, 해피빈, 사랑의 열매, 카카오키가치 등 후원과 모금함 진행
- 2022년~2023년 독립유공자후손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진행(대한의 보금자리)

마. 기타

- 도서 지원, 중증 환자 가족 지원 등등

□ 사회적 가치 실현

- 가. 홍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은 단지 경제적인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사회 정의를 이어가는 가치를 구현한다는 의미를 꾸준히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 나. 참된 나라사랑을 실천한 독립유공자와 그들의 후손을 국가·사회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진정한 나라사랑 정신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독립유공자후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 내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펼쳐가고자 합니다.

□ 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의 편지글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월 8일에 홍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입니다. 대학교에서 공공인재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고3 때 장학금 덕분에 필요한 교재를 살 수 있었어요. 입시생이다 보니까 책값이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필요한 인터넷 강의 수업도 들었어요. 비록 성적이 높지는 않았지만, 한국사 만큼은 도와주신 손길과 증조할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만점을 받았어요.^^ 대학교에서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홍사단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도, 휩쓸리지 않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증조할아버지가 자랑스롭습니다. 홍사단을 통해 자랑스러운 독립 운동의 역사와 선연들을 기억하며 가슴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활동 사진



지하철 광고



2023년 장학증서 수여식



임시정부 탐방



후손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2022년)



리더십 함양사업 : 해군 협력사업



독도 방문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제68회 현충일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60명에게 장학금 전달

일반 시민, 도산안창호함 승조원 등이 독립유공자와 후손 예우
SK엔무브, 독립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한은행지부, 우리별, 서울 국제고등학교 후원 이어져

김환태 발행인 | 기사입력 2023/06/09 [00:02]



▲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가 현충일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국민뉴스=김환태 발행인]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이춘재)는 6월 6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참된 나라사랑을 실천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예우하는 ‘2023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증서 전달식’을 흥사단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3년에 설립한 민족부흥운동단체다.